

민주 지지층 김민석 우세...일반여론 정청래 앞서

당심 김민석 36.3% 선두
정청래 29.5% 송영길 14.2%
일반국민 조사 정청래 우위



김민석 前 총리 정청래 前 대표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일반 지지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원씨앤이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월 27~29일 사흘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김용민 3.4%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인물은 3.4%, 없음 7.4%, 모름 5.7%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경선은 권리당원 70%, 일반국민여론조사 30%의 비중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당지지층의 지지도가 당대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에서 서울은 김민석 36.4%, 정청래 31.7%, 인천·경기도 김민석 35.7%, 정청래 31.6%였다. 광주·전라에서는 김민석 34.9%, 정청래 26.2%, 송영길 2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지난번 조사(6월 6~8일)와 비교하면 김민석 7.2%p, 정청래는 6.0%p 각각 상승한 반면, 송영길은 5.5%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7.9%로 김민석 후보의 23.3%를 앞섰다. 다음은 송영길 11.0%, 김용민 3.5%, 그 외 인물 6.4%, 없음 21.7%, 모름 6.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조사는 표본수 106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호남제일루’ 남원 광한루 국보 승격

조선 후기 대표 관영누각 인정
건축·역사·예술성 모두 탁월
춘향전 배경 문화유산 위상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천거동에 소재한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가 국가 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누각(官營樓閣)으로,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 불린다.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黃喜, 1363~1452)가 남원에 유배돼 세운 광통루(廣通樓)가 기원으로, 이후 광통루가 쇠락하자 1434년 남원부사 민공(閔恭)이 새로 누각을 짓고, 1444년에 정인지

(鄭麟趾, 1397~1478)가 누각에 들려 달나라 궁전인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에서 이름을 따 광한루로 개칭했다.

관리들의 연회와 사회가 열리던 곳이였으며, 주변의 호수와 3개의 섬(봉래, 방장, 영주), 그리고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 정철(鄭澈, 1536~1593)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축조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됐다가 1626년(인조 4)에 남원부사 신감(申鑑, 1570~1631)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중건했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상량문, 기문, 읍지 및 근현대 신문기사 등에 관련 기록이 명확히 있고, 큰 변화 없이 약 400년의 역사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

력이 축적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리와 선비들이 교류하며 시문을 창작하던 관영누각으로도 활용됐는데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공간이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관공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으로 문화사적인 가치 또한 탁월하다.

광한루는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함께 요선각의 은물, 월랑의 계단 등 실용적 요소가 결합된 목조건축유산으로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명승으로 지정된 광한루원의 정원유적과 어우러져 빼어난 예술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남원 광한루의



<사진=남원시>

국보로 승격 지정 위상에 맞도록 국가 유산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전북자치도, 응급의료 닥터헬기 중형 ‘업그레이드’

소형기종서 중형기로 교체 운항
서울 등 장거리 이송 성능 강화
도서산간 응급의료 안전망 확대

전북도가 1일 도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기존 소형기종에서 중형기종(AW-169)으로 교체하고, 본격 운항에 돌입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기존 소형 닥터헬기(AW-109)는 권역의상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에 배치돼 지난 10년간 총 1,62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전 북은 물론 충남 서천·보령 등 인접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닥터헬기(AW-

169)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사가 제작한 기종으로, 기존 소형헬기보다 기내 공간이 넓어 의료진의 처치공간 확보와 다양한 의료장비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환자를 기내 중앙에 배치할 수 있어 의료진이 양방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속거리와 운항 성능이 향상돼 서울 등 장거리 이송 시 급유에 따른 제약 없이 출발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원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기종 교체는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운영되는 중형 닥



<사진=전북도>

터헬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회의원 명	상임위	비고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	
이성윤	법제사법위	
정동영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의겸	산업통상자원위	
박지원	보건복지위	예결위
이춘석	재정경제기획위	예결위
한병도	교육위	운영위
윤준병	농림축산해양위	
박희승	산업통상자원위	
안호영	기후노동위	
조배숙	법제사법위	예결위

<제22대 하반기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최종 확정

법사위와 산업위 각각 2명
예결위 이춘석 박지원 조배숙

제22대 국회 하반기 전북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최종 확정됐다. 전북 국회의원 11명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명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정됐다.

다만 전북의 주요 현안이 물려있는 국토위와 행안위(특고 안배 등)에는 배치되지 않아, 민주당과 전 북 연고 출신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이 김윤덕 의원이라는 점에서 주요 현안 사업

의 추진과 국비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전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11명의 의원들의 상임위는 △김윤덕 문화체육 △이성윤 법사위 △정동영 과학위 △김의겸 산자위 △박지원 복지위 △이춘석 재경위 △한병도 교육위 △윤준병 농해수 위 △박희승 산자위 △안호영 기후 위 △조배숙 법사위 등이다.

이와함께 내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예결위에는 이춘석 박지원 조배숙 의원 등 3명이 배정되었고, 원내대표로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한병도 의원은 운영위에 배정되었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 출범

“호남 반도체 전북 못 찾겠다”
전북 정치권 협력 추진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당차원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어제 서남권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보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와 대통령실 전담팀이 구성됐다”며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가칭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TF는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위 원장을 맡고,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향후 TF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

이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계획이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 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업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전북정치권이 “호남 못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지역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전북에도 상당 부분 투자가 되도록 협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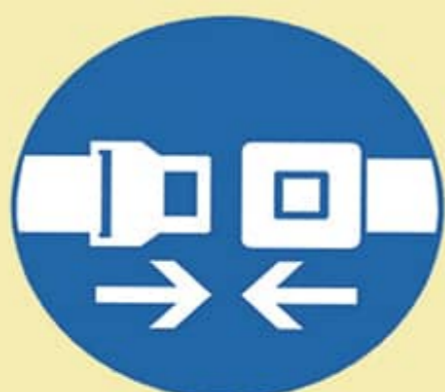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교통사고 예방수칙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전좌석

안전띠 사용



졸음 운전

금지



과속 운전

금지



안전거리

확보

전주시 민선9기 조지훈 전주시장 출발

“행식은 덜고, 정책은 더하고”
시정철학·핵심 정책 공유

제41대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정책브리핑 및 청원과의 대화' 시간을 갖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1일 조 시장의 첫 소용은 “행식은 덜고, 정책은 더하고” 의미를 붙인 전주시 민선 9기 합찬 출발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여러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민선 9기 “전주시 시정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 주권과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41대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정책브리핑 및 청원과의 대화' 시간을 갖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전주시>

이와 함께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라는 민선9기 시장 목표를 세워 공직사회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조 시장은 ‘청원과의 대화’ 속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 혁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관련해 시는 정책브리핑을 시작으로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체감형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 9기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공직사회와 실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연장’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주시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4월 7일)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지난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 △유형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배우 김응수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 첫 행보 ‘마약 근절’

앞으로 2년 동안 전북경찰청과 함께 마약류 범죄 근절 보이소피싱 예방 노소 사기 예방 청소년 도박 예방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도민 체감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응수 배우는 “전북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뜻깊고 감사드린다”며, “대중에게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북도민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친숙함으로 전 세대에 걸쳐 두터운 사랑을 받는 김응수 배우를 전북경찰의 든든한 치안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도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홍보대사와 함께 주요 치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장 최주만 의원 선출

부의장 김동헌 의원
지역발전·시민복지증진 ‘다짐’

전주시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최 의장은 제7대, 8대, 12대를 거쳐 이번엔 4선에 올랐다.

특히 그는 8대 의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장, 12대 의회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최주만 의장 김동헌 부의장 같은날 전주시의회 제13대 전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부의장은 제11대와 12대에 이은 3선 의원으로 12대 의회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선출에 이어 제13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범위를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최주만 의장은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소통과 신뢰가 살아나는 의회, 정당과 선수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을 존중하고,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동헌 부의장은 “생각과 판단이 달라 그 과정의 끝은 항상 시민을 위한 결과이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가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간이다. /김영태 기자

조지훈 시장 ‘전주시 비상재정’ 극복 최우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
시민 앞에 재정 상황 투명 공개

조지훈 전주시장이 1일 전주시 재정혁신 방안 결제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섰다.

조 시장의 첫 업무 결제는 ‘비상 재정 극복’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전주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장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시는 △구조적 한계 △대규모 시설 투자 △지방채 부담까지 맞물려 재정 운용 구조 재정적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재정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사업 재조정 검토 및 주요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 위원회 공개 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시장을 재정혁신특별위원장으로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경영·행정, 시민 소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녹색 나눔숲’ 조성

신성양로원 부지 개방형 숲 조성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삼전동 신성양로원(완산구 계룡산길 44-10) 일원 1020㎡ 부지 녹색 나눔숲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녹색인프라 확충)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나아가 2025년 10월 2026년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다.

관련해 시는 신성양로원 내 유휴 공간에 시설 이용자와 인근 어린이집 원아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동백나무 등의 95그루 교목류 △남천 등의 1640그루 관목류 △꽃잔디 등 400㎡의 초화류 등 총 1735그루의 수목이 식재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층 이용 편의를 고려해 산책로와 피크러, 벤치,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조성 후 이곳을 상시 개방해 누구에게나 열린 복지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신성양로원과 협약을 체결했고 복지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녹색자금 자문 위원설계 기술 자문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니어클럽 새뜰마을 거점시설 사업설명회

생활문화일자리 서비스 제공 공유

전주시니어클럽은 지난달 30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새뜰마을 거점시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는 새뜰마을 거점시설의 상반기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이 공유되며 전주시니어클럽이 거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목적과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 주민, 행정, 지역구 시·도 의원,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시니어클럽이 함께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주시니어클럽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거점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 공간 대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행사 추진 등 주요 운영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거점시설 위탁 운영의 핵심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주체의 역할도 공유됐다. 마을 주민은 거점시설의 실질적인 이용자이자 운영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주체로서 시설 활용

의견 제시와 프로그램 참여, 공동체 활동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 거점시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과 운영기관 간 소통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주시니어클럽은 위탁 운영기관으로서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 도토리골 새뜰마을마당에서 도토리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됐으며, 이어 오후 3시 남노송동 새뜰마을마당에서 남노송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사업경과보고에서는 새뜰마을 거점시설 조성 이후 운영 경과와 시설 활용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거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니어클럽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새뜰마을 거점시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여름철 유증기 화재 막는다!”

도내 셀프주유소 489개소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야간 불시검사 병행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확인

전북소방본부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관련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셀프주유소 48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유증기 화재 집중점검은 7월부터 오는 8월까지 도내 셀프주유소 489개소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주요 사항은 △위차·구조·설비 기준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정기점검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이다.

특히 야간 불시검사 병행 계획을 세워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준수 여부까지 확인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셀프주유소 특례 기준에 따라 △고객의 주유 작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감시대 관리 상태 △감시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제어장치 작동 여부 △방화설비 적정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수상작 선정

국민 시각 아이디어 발굴전... 제도부터 일상까지 전기안전 구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본선 심사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전기안전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제도개선 △일상생활 속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26편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에선 심사를 통과한 총 8편(분야별 4편)의 본선 진출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와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본선 PT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알려졌다.

이날 심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본선 심사 결과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 부문에서는 '노후 ESS 화재 예방 정밀안전진단 제도 신설'이,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부문에서는 '전기안전카드를 활용한 주거시설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각각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상장 수여는 오는 9월 8일 열리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은 우리



사회 전기안전 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전기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농촌일손돕기 손길 연일 이어져

포도농가서 구슬땀 농업인 행복의 미소 '방글'

북전주농협 농촌일손돕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우광 북전주조합장과 임직원들의 이번 농촌일손돕기 손길은 조합원 포도농가를 향했다.

이번 일손돕기에 참여한 북전주농협 임직원들은 포도 봉지씽우기

작업을 도우며 병해충과 장마철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포도 봉지씽우기는 과실 품질을 높여 수익에 연계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포도영농작업이다.

참여한 직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도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포도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을 담으며 농업인들과 행복의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업인은 "영농철 농협 직원들의 일손돕기 양손에 큰 힘이 됐다"며 "턱분에 적기에 작업을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구슬땀 같은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농촌일손돕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언제나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전북도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실무 장벽 깨고 동반 성장 시동"

전북TP가 1일 '2026년 제2차 전북도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신규 지정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혁신기업 실무 담당자 및 전북TP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신규 지정 혁신기업 소개 및 환영 △혁신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일정 안내 △전북TP 주요 요청자료의 효율적인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기업별 현안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전북TP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주요 요청자료 제출 요령 및 실무 가이드를 직접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밀착 맞춤형 소통을 전개했다.

나아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과 자율프로그램 등 본격적인 연계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후배 혁신기업들을

위한 선배 기업들의 공유가 이어졌다.

관련해 선배 기업 실무자들은 그동안 육성사업에 참여하며 쌓아온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예산 집행 노하우, 그리고 성과 도출을 위한 실무 전략을 상세히 전수하며 후배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김영태 기자

'헛개나무꿀' 전립선 건강 돕는다

농진청 '전립선 비대증 억제'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헛개나무꿀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현재 우리나라 벌꿀은 아까시꿀과 밤꿀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들 채밀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에는 기후변화, 밀원 부족에 따른 불안정성이 커지며 양봉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다.

그동안 '지구자'라 불리는 헛개나무

열매가 간 보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약재, 숙취 해소 음료 소재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꿀에 과당과 포도당 등 당당류를 비롯해 미네랄, 체내 항산화 유지에 필요한 칼륨과 유기산, 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지닌 헛개나무꿀을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함께 헛개나무꿀의 다양한 기능성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 헛개나무꿀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립선 비대를 유도한 후 전립선 상피세포(RWPE-1)에 헛개나무꿀을 처리했다.

그 결과, 염증 유발 단백질인 COX(고리형 산소화효소)-2와 iNOS(산화질소 합성효소)의 발현이 각각 93%, 64% 감소해 만성염증에 의한 세포 증식이 억제됐다.

섬유성 조직 전환 표지인 엔-카드헤린(N-cadherin), 비멘틴(vimentin) 발현이 각각 90.6%, 70.2% 줄어 '세포 섬유화 과정'도 줄어들음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도 전립선 비대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전립선 비대증 쥐에 헛개나무꿀을 6주간 하루 600mg/kg 섭취시킨 결과, 전립선 무게가 19.3%,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72.2%, 과도하게 증식됐던 전립선 상피 무게가 60.7% 줄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립선 관련 건강 기능식품 소재 개발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 학술지 Food Frontiers(IF 6.9)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소기업 시험분석·품질인증획득 지원

제조기반 경쟁력 강화 2분기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2분기 참여기업을 오는 24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시험분석 지원은 소기업 제품의 성능·성분검사, 신뢰성 평가 등 제품검증에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의 90%(부가

세 제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된다.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시험분석을 통해 검증된 성능을 KS, KC, Q마크를 비롯해 신기술, 신제품, 조달우수제품인 증 등 각종 공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부가세 제외)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연간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의 시험분석 항목에 대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시험분석 지원과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전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진원은 올해 사업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인인증 취득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민간시장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LX 어명소 사장 2027년 경영정상화 선언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1일 '제49주년 창사 기념식'에서 경영정상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창사 기념식에는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지적재산 사업과 민원 처리, 고객만족도 등 우수직원 등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어명소 사장은 기념식에서 "매출 확대, 비용 절감, 인사제도 개편, 조직 효율화 등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전직원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적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의 판단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신사업 발굴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2027년에는 흑자전환을 통한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비상경영체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거문고의 줄을 풀어 새 줄로 고쳐 맨다는 해원경장(解弦更張)의 비장한 각오로 전 직원이 하나 돼 맡은 역할에 충실하 다하자"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건협 전북지부, 부안 남주중서 건강캠페인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김기현)는 지난달 30일 부안 남주중학교를 찾아 학생 건강캠페인을 전개했다.

행사는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활동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현장에서 건협 전북지부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측정 체험 부스'를 선보였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익하게 해소하는 방안을 조언하는 한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JB 생활요금 계좌자동이체 이벤트'

JB 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생활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1일부터 'JB 생활요금 계좌자동이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개의 이벤트로 나눠 진행한다.

이벤트1은 아파트관리비, 상하수도·도시가스요금, 보험료, 전기·통신요금, 카드대금 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전북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규 등록하고 정상 출금한 고객 전원에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자동이체 출금일적 1회당 이벤트2 추천권 1매가 부여된다.

이벤트2는 위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고, 속뱅크에서 '잔액 자동충전 서비스'를 신청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충전주기에 따라 월 50만원 이상 자동 충전을 완료한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잔액 자동충전 서비스'는 전북은행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다른 계좌에서 자동으로 자금을 충전해서 잔액을 유지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이체 출금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잔액 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요금 납부를 지원한다.

참여방법은 영업점 또는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앱 '속뱅크'를 통해 이벤트 응천금일적 1회당 이벤트2 추천권 1매가 부여된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사회적 경제 활성화 15년 상생협력 결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일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된 '사회적 기업 협업 우수기관' 포상은 사회적기업과의 판로 개척을 돕고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우수한 기관에 수여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5년간 진정성 있게 추진해 온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로로 △스타트업 육성 △자원순환 △상생협력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한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는 2024년부터 ㈜스타트폴리오와 협업하고 있는 'K-혁신 프로젝트'이다. K-혁신 프로젝트란 민·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타트폴리오는 국민연금

사내벤처 1호로, 2023년 6월 창업 분사한 스타트업 성장전략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일 '연금이네 장터'를 열어 공단 시설을 지역기업에 개방해 지역 농·생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익산의 맛과 이야기 따라 걷는 특별한 여행”

미식·문화자원 활용 도보형 관광상품 이달 총 4회 진행

익산시가 원도심의 맛과 이야기, 골목의 정취를 함께 즐기는 도보여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원도심의 미식·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형 관광상품 ‘아라운드 트립-미식

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역사·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오는 10일, 11일, 24일, 25일 총 4차례 운영되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익산역에서 출발해 △지역 노포 이야기 탐방 △전통시장 먹거리 체험 △로컬커피방 △중양동 차킨로드 및 근대역사 문화공간 투어 △

원석 팔찌 만들기 체험 △인화동 대표 먹거리인 깨동떡 시식 등을 즐기며 원도심 곳곳의 매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 로컬기업인 ‘로잇스페이스’와 협력해 운영된다. 지역 청년기업이 직접 원도심의 숨은 미식·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관광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도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익산역을 거점으로 별도의 차량 이동 없이 도보 중심으로 운영돼 철도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회차별 1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 안내된 쿼일(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체육회, 선수·지도자 진로 문제 해결

14일까지 특별 채용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전북 체육을 빛낸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채용에 나섰다. 1일 도 체육회는 신규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직원 2명(8급 1명·9급 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채용공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8급 채용이다. 채용기준을 보면 전북 출신으로 도 내 중·고교, 대학, 직장운동경기부에

서 10년 이상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했거나 선수·지도자 경력 합산이 10년 이상인 자이다. 단 전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다. 이는 도 체육회가 선수·지도자들의 진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채용 자격 요건을 넓힌 것이다. 도 체육회는 전북을 빛낸 선수들이 은퇴 후 뚜렷한 진로 대책이 없어 전 사회를 열고 특별채용 신규임용 자격 요건을 추가한 처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정철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첫 행보는 ‘학생 안전’

효천초 등굣길 안전지도 캠페인으로 임기 시작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과 첫 기자간담회를 소화하며 4년 임기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천 교육감은 1일 오전 8시 전주효천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녹색어머니연합회 등과 함께 캠페인에 나선 천 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횡단보도 안전 보행을 지도하고,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살피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전북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꼽았다. 그는 “교육은 개인의 관점을 뛰어넘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라며 “전북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학력과 진학·진로 교육을 전북 교육의 양대 축으로 제시한 천 교육감은 “진학·진로교육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교육 플랫폼 역할을 맡기겠다”

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전 프로젝트와 고등학생 대상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라며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해 포용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천 교육감은 오전 11시 본청 5층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인사에 주재하며 본격적인 내부 업무 파악에 돌입했다. 이날 천 교육감은 인사문을 내고 “천호성 교육감의 전북교육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교육감 체제가 전북 교육의 안정과 회복을 이루고 미래 교

육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시성 사업보다 학교 자율성과 현장지원 중심 행정에 집중하고, 교권 보호·학력 신장·학교업무 재구조화를 임기 초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같은 날 인사문을 내고 “인사위원회의 슬로건과 인사 구성을 바라보며 교육 현장에서는 전북교육이 다시 혁신학교 시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북교육이 특정 교육철학의 반복이 아닌 학생 중심, 학력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교육감의 공식 취임식은 내일 오후 2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4일 강원전서 후반기 첫 승 정조준

전북현대모터스FC가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 1 후반기 첫 경기에 나선다. 전북 현대는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6 1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전북 현대는 이날 6·25전쟁 참전용사 열 분을 경기장에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경기 전 선수단 격려 및 시축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6일 현충일에 열린 전북 현대 N팀 홈경기 수익금 1,000만 원을 전북동부보훈지청에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일회성 행사가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팬들이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아쉬움을 남겼던 국가대표 출신 센터백 박지수가 마침내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박지수는 이번 양산 전지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으며, 이번 강원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김일원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 팬들에게 더 박진감 넘치고 승리하는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뭉쳐 준비했다”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홈경기인 만큼, 전주성을 찾아주시는 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정읍시>

‘제31회 정읍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정읍지역 32개 동호회 300여 명이 참가한 ‘제31회 정읍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가운데 신대인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도 우승팀인 이평면 선수단의

우승기 반납을 시작으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으며, 수성동팀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 대회는 승패를 떠나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회전

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 순회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전시 내용을 두 개의 이동형 ‘기억상자’에 담아 지역 시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두 개의 기억상자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억상자 ‘우리나라 최초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는 과정과 임시헌장 제정의 의미를 소개한다. 두 번째 기억상자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환국 과정을 비롯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과 국호, 태극기, 애국가, 국가기념일 등을 계승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역사를 소개한다.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군산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군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가까이에서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공연 ‘절기 한그릇’ 선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두(頭:DO)댄스무용단이 한국의 절기 문화를 주제로 한 초연 창작공연 ‘절기 한그릇’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초연 창작품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 예술단체의 신규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몰입형 공연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절기 한그릇’은 한국의 24절기와 절기 다과, 전통춤을 결합한 오감 체험형 공연이다.

특히 전주의 계절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음식과 춤, 공간예술을 하나의 콘텐트로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공연에는 두(頭:DO)댄스무용단 무용수들과 연출가 오지윤, 특별출연 황은숙이 참여하며 절기별 주제에 맞춘 전통춤과 음악, 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인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작품은 전통문화 속 절기와 계절의 의미를 현대적인 공연예술로 재해석한 초연 창작 콘텐트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트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동네가게 이용하기

전통시장 이용하기

지역상품 구매하기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무 간담회 개최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인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32개 관련 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의료·요양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수성동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력 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무 회의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월 첫 만남 이후 3월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신나 장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보건 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필수적인 혜택을 한 데 묶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총 6억 4300만원(국비 3억 2200만원, 도비 91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노인 500명과 장애인 50명 등 총 5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370여 명에게 1900건에 달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는 복합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68종의 연계 지원과 10종의 자체 개발 특화 지원을 활용해 1인당 평균 3~4가지 혜택을 연결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고 정읍형 통합돌봄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송리문화금고서 기념주화 3종 선보

익산의 대표 관광명소와 캐릭터를 담은 기념주화를 송리문화금고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복합문화공간인 송리문화금고에 기념주화 자판기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 자판기는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송리문화금고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판기에서는 △송리문화금고 △미륵사지 석탑 △익산시 관광캐릭터 ‘마룡’을 담은 기념주화 3종을 각각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념주화는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장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념주화 자판기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송리문화금고를 찾는 즐거움을 더하고 익산만의 문화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과수 전염병 유입 막는다… 현장 예찰 총력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막고자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화상병은 사과와 배의 꽃이나 잎, 가지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며 죽어가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분류된다.

올해 전북 무주군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경기 고양시 등 전국 곳곳에서 검역 사례가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사과와 배 재배 면적 92ha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출입 관리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면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해 정밀 진단과 초기 대응이 이뤄지도록 안내 중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며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 활동을 통해 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철저히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 취임

시정 비전 선포 “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군산 열겠다”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고 ‘시민주권도시 군산’을 시정 비전으로 선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은 국민을 주인이라 불렀지만, 현실의 시민은 오래도록 이름뿐인 주인이었다”며 “시민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결정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을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 규정했다. 시장실의 청사 1층 이전, 정책실명제, 시민참여형 청렴 거버넌스, 주민자치회 강화 등은 모두 이러한 철학을 행정 구조로 구현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김 시장은 군산이 처한 재정 여건을

짚으며 내실 있는 시정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회가 크다고 해 우리의 현실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는 줄고 풀어야 할 숙제는 쌓여 있는 만큼, 화려한 청사진보다 살림살이부터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않고, 존중으로 마주하고 대화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군산을 위한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더라도 향하는 곳이 같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군산이 맞은 기회를 ‘세 개의 거대한 전환’으로 설명했다.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재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흐름을 바꾼 자원과 기회가 모두 새만금과 군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시민주권을 다섯 가지 생활 영역에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주권’은 시장실 1층 이전과 정책실명제, 주민자치회 강화로 시민이 시

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넓힌다.

‘경제주권’은 RE100 산업단지, 현대차 투자 대응 시장 직속 전담체계,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을 통해 선순환 경제를 구축한다. ‘문화주권’은 월명동 근대역사문화거리 미디어아트, 국제 근대문화 비엔날레 등으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감동의 도시’를 지향한다.

‘원주주권’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효도매니저’, 농어촌·도시지역 생활 기반 확충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

‘안전주권’은 침수 대응 스마트 물관리, 2028년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 등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핵심으로 한다.

김 시장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의 역할을 ‘시민의 대리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저는 군산 시민이 잠시 맡겨주신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라며 “시민이 맡겨주신 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공중보건의 공백 메운다

‘통합형 보건지소’ 가동

정읍시가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사 부족 사태에 대응해 오늘부터 간호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가동한다.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운영 모델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환 대상은 민간 의료기관(의과)이 없는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 △용동 △산내 △정리, 2028년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 등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핵심으로 한다.

김 시장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의 역할을 ‘시민의 대리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저는 군산 시민이 잠시 맡겨주신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라며 “시민이 맡겨주신 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이에 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보건지소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 인력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2명씩 투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운영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숙련된 전담 공무원이 지역을 돌며 일차 진료와 만성질환 약 처방, 상시 건강 확인(모니터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 변화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이 약 처방을 위해 시내 병원까지 멀리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익산시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역 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궤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광고 제한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보건사업과와 미시위생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중

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관리가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을 안내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 9기 힘찬 출범

“민선 8기 성과 있고 결실 맺겠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1일 시정 대화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화려한 걸치레 대신 내빈 초청을 최소화해 내실을 다졌다.

공식 일정은 총합담 참배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은 시립국악

단의 축하 공연,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전문 낭독, 축하 영상과 민선 9기 비전 영상 상영, 떡케이크 자르기, 기념 촬영 순으로 치러졌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8기를 정읍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는 그동안 일군 변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결실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를 선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산업 키우는 성장도시 △농촌·민생 살리는 활력도시 △교육문화 누리는 품격도시 △건강복지 지키는 행복도시 △생활인구 모이는 정주도시를 5대 지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일자리와 경제, 농업과 농촌, 보육과 교육,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도시·교통·환경, 청년과 소상공인, 체류와 생활인구 등 8개 분야 80개 공약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가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던 민선 9기는 그 변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와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 정읍 대도약을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민선9기 ‘첫발’

“발로 뛰는 공무원 돼 앞장 서는 일꾼” 다짐

민선 9기 익산시정을 이끌어갈 최정호 익산시장이 ‘익산 대전환’을 향한 막대한 여정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익산시는 1일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각계각층 내외 귀빈, 공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호 제11대 익산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취임식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시립풍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최정호 신임 익산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익산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막중한 책임감과 익산 대전환을 향한 시민의 열원을 품고 첫발을 옮긴다”며 “시정의 주인이 오직 시민인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익산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한 민선 9기 역점 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KTX 익산역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교통허브도시, 반도체 특화단지 및 AI 스타트업 창업 혁신센터 조성을 통한 미래첨단도시, 국

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기 추진과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을 결합한 농생명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그런데서 적극 행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시장이 온전히 책임지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공직 사회를 격려하기도 했다.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발품 행정도 예고했다. 최 시장은 “시장실에만 앉아 있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투자 현장 어디든 달려가 기회를 가져오는 최고의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며 “기꺼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2001번째 익산시 공무원이자 가장 앞장서는 일꾼이 돼 함께 땀 흘리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소방서 ‘베스트 화재조사관’소방장 김하연 선정

현장 중심 조사 활동 우수

군산소방서는 ‘2026년 상반기 베스트 화재조사관’으로 현장대응단 소속 소방장 김하연이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화재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계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소방장 김하연이 ‘베스트 보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가 기간 동안 군산지역에서는 총



김하연 소방장

14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도내 소방관서 가운데 가장 많은 화재조사 실적이다.

소방장 김하연에게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 1일이 부여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화재조사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화재조사로 신뢰받는 소방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여름철 어르신 건강 관리 ‘총력’

경로당 찾아 건강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지역 내 95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챙기는 맞춤형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공예와 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어르신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식물을 다루는 원예 수업은 정서적 안정을 돕고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순을 많이 쓰는 공예 활동은 소근육을 발달시켜 신체 기능 저하를 막고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초 건강 검진을 진행한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도 병행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막을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겠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군 “주거·건강 지원 최선” 2(題)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고창군은 무장면과 아산면 내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의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국·도비 75억원, 군비 25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9km와 172가구 배수설비를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 온 개인정화조를 폐기하고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되는 배수설비를 정비해 생활오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무장면 강남리(석수, 원강남, 신대, 장두)·원촌리(원금곡)와 아산면 성산리(성기, 죽산)일대 처리분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정비에 대한 국비 확보와 하수도 정비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 ‘양심 냉장고’ 운영

전북 고창군이 폭염대응을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거점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심냉장고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여름철, 군민의 열질환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되며, 야외 활동자나 보행자 등 누구나 1인1병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폭염 대응 생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해 각 면별 여건에 따라 주민행복센터, 터미널, 승강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장소는 △고창군청 앞 △고창읍성 앞 사거리 야외쉼터 △고창 부안 축협 앞 △고창임시터미널 △고창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등 8곳이다.

한편 고창군은 양심냉장고 외에도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늘막 40개소 운영 △무더위쉼터 607개소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 운영되는 장소는 △고창군청 앞 △고창읍성 앞 사거리 야외쉼터 △고창 부안 축협 앞 △고창임시터미널 △고창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등 8곳이다.

이전에 운영되는 장소는 △고창군청 앞 △고창읍성 앞 사거리 야외쉼터 △고창 부안 축협 앞 △고창임시터미널 △고창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등 8곳이다.

아울러, 13개 면 지역에도

아울러, 13개 면 지역에도

김제시, 중소기업은행과 ‘금리우대’ 협약

‘이차보전사업’ 추진

김제시가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해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1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과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골자로 하는 ‘김제시 이차보전사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제시와 중소기업은행의 굳건한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관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결합해 대상 기업에게 우대 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금리 우대는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 후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력이 자금난과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김제

시는 1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과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골자로 하는 ‘김제시 이차보전사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 분야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9개 항목 분야의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수상으로

고창군의 위상을 높였다.

고창군은 하반기에도 납세 행정성 강화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매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시상금(도비) 2억48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상습 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지진 납부하는 선진 세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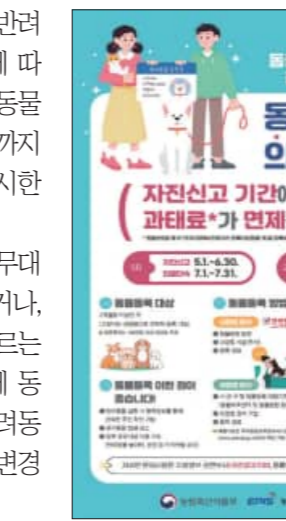
김제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김제시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반려동물 자진 등록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 축산진흥과나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된 경우 마리당 2만원 내 등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관계자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본격화

신북·도청마을 대상지 선정

부안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보안면 신북마을과 반산면 도청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부안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2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두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스레이트 지붕 철거 및 노후주택 정비 △승리진 철거 및 위해시설물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소방도 및 안전시설 확충 △담장·축대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돌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후면케어 분야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북마을과 도청마을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보안면 신북마을과 반산면 도청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해수욕장 3일 일제 개장 여름 손님맞이 본격화

부안군은 개장 전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시설 및 안전시설, 구조장비 등을 점검해 개장 준비를 완료하고 3일부터 반산·격포·고사포·모항·위도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에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46일간이며, 하루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폐장 이후에도 내달 31일까지는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을 유지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 해수욕장인 반산해수욕장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1일간 야간 개장을 실시,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관리 대책과 편의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96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안전시설과 장비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폭염 속에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여름철 이상기후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찾는 발걸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추억을 품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30개 품목 추가 선정

김제시는 1일 15개 업체의 답례품(30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신규 공급업체는 △서리태떡(주식회사 그레인뱅크) 등 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25종, △마을 주민이 그린 김제 풍경화(문화예술허브 창조) 등 식품 외 제품 3종, △축산산거리 오후휴동조합 삼점 이용권(오후휴동조합) 등 체험권 및 상품권류 2종으로, 이달 중 공급업체 계약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고흥사랑e음 답례품물을 통해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이로써 시에서 제공하는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이번에도 추가 선정된 품목과 공급계약이 해제된 품목들을 반영하면 이달부터 총 46개 업체, 7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이 선정돼서 기쁘다”며, “많은분들이 김제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우수한 답례품도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7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저어새 선정... 생태적 가치 홍보

고창군은 7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저어새를 선정하고,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 이동경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어새는 검은 얼굴과 손가락 모양의 부리가 특징인 물새로,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종이다. 특히 번식기에는 머리 뒤로 노란 장식깃이 자라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다. 갯벌에서는 부리를 좌우로 흔들며 먹이를 찾는 독특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손가락 모양의 부리로 물속을 저어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 것이 저어새의 대표적인 생태적 특징이다.

고창갯벌은 저어새의 번식지와 월동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영광에서 번식한 개체들은 번식이 끝난 뒤 고창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인천과 서천 등 다른 번식지의 저어새들도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창갯벌을 찾는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저어새는 고창갯벌을 찾는 대표적인 철새로, 건강한 갯벌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물새”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대표 조류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갯벌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민선9기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

“행복한 부안 만들기 위해 온힘 쏟겠다” 다짐

부안군은 권익현 제47대 부안군수가 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군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부안의 도약을 함께 응원했다.

행사는 군청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식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분향사, 참석자 인사, 배식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임식에서는 ㈜DH글로벌 이장권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하영상, 친선결연도시 축하영상, 군민의 목소리 영상, 민선 9기 부안 대도와 희망 메시지 영상이 상영돼 군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DH오토리드 이석근 대표이사과 DH오토닉스 김영식 대표이사과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고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부안 발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권익현 군수는 취임선서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취임사에서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 앞에 열린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살려 투자와 일자리

가 이어지고 그 성과가 군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미래 100년 부안을 열어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군정목표를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으로 정하고 신바람 햇빛소득 기반 마련, RE100 산업단지 추진, T자형 철도망 구축 등 3대 도전과 민생군정, 부안형 기본사회 등 4대 약속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민선9기 ‘대도약’ 시동

“중단없는 고창발전 고창대도약 이끌겠다”

심덕섭 제49대 고창군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오전 고창동리극악당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민선 9기 고창군정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날 심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들께서는 중단없는 고창발전으로 ‘고창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나고 ‘변화와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설렘으로 마침내 ‘집권 여당 소속 재선 군수’를 만들어 주셨다”며 “앞으로 민선 8기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진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고창대도약을 이끄는 선봉에서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최우선 목표로 공약사업의 빠른 추진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첨단 기술의 융합에 적극 나서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농업에서 기회를 찾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의 군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심 군수는 “공평하고 공정한 군정을 펼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와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고창군 민선 9기 심덕섭 군수는 민주

사회·투명행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군정을 공개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행정’, ‘개방된 군정’,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갈등이 없는 화합의 사회, 갈라치기 없는 통합의 사회는 우리가 해내야 하는 소명이다”며 “항상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어려운 일은 함께 의논해서 해결의 길을 열겠다. 실수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9기 출발

“시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이룬 성과와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김제 발전을 위한 공식 임기에 돌입했다.

이날 정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오전 6시 시내 일원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정을 시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어 군경묘지와 충훈탑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임식장에 참석했다.

이번 취임식은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산면 주민자치센터의 ‘해피해피 노래교실’과 호남오페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새로운 김제에 바라는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대통령 축하메시지 대독 등 순서로 약 50분간 이어졌다.

특히, 이번 취임식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르신을 대표하는 시민 3명이

직접 시장에게 ‘시민 임명장’을 전달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시민 임명장에는 김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기대와 당부가 담겼다.

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시신 성원은 지난 4년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의 4년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시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뚝으로 삼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김제의 더 큰 미래를 향해 합쳐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경제도시 남원”...민선9기 뜻 올려

양충모 시장 취임식 개최 “검증된 행정력 성과” 약속

양충모 남원시장이 1일 춘향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기관·사회단체장, 각계각층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민선9기 남원시정의 환한 출발을 알렸다.

이날 양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9기 시정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시장은 “시민의 선택은 단순한 명의 시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남원을 살리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경제도시의 행적을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며 “사람이 모이고, 감동의 문화가 흐르며, 시민의 삶이 따뜻한 경제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을 약속했다. 그는 “공직에서 쌓아온 다양한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남원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중앙정부에서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오롯이 남원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시장은 청렴을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공직사회 혁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남원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라며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시청에



<사진=남원시>

서 간부공무원들과 차담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만민인총을 참배하며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주요 내빈, 지역 언론인과 차담을 갖고 시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설명했으며, 오후에는 남원향교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민선9기 출범 ‘대도약’ 비전 선포

유희태 군수 민선9기 시작 피지컬AI·수소산업 육성 박차

제47대 유희태 완주군수가 민선 9기의 힘찬 달을 올리고 ‘행복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

1일 완주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완주군의회 군의원들을 비롯해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류두현 전주대학교 총장,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김재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등 학계, 경제계, 언론계, 유관기관의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대 유희태 완주군수 민선 9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은 정문에서 군민들을 맞이하는 ‘맞이 약속 인사’를 시작으로 취임선서, 민선 9기 청사진 발표 등 군민 중심의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사진=완주군>

이번 출범식은 완주군이 공표한 중점 과제들과 긴밀히 연결된 각계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햇빛소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측이 자리를 빛냈으며, 완주군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AI’와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 전북대 등 학계 수장들이 동행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체계 완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장들

이 동참했다.

유희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완주의 경제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확실히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수 출범식을 기점으로 전북 제1 경제도시, 행복지수 1위 도시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공약 이행과 조직 정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최영일 군수, 군민 소통으로 민선9기 출발

타운홀 미팅 취임식 ‘눈길’ 소통·화합·실용 군정 강조

최영일 순창군수가 1일 민선 9기 제51대 순창군수 취임식을 갖고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를 군정 비전으로 새로운 4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다.

취임식에 앞서 춘향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참배한 최 군수는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들에게 밝혔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군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과 군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군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

실용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순창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 핵심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라는 군정 비전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우기 전 호우피해지역 복구 총력

유희태 군수 운주면 현장점검 비상연락체계·대피경로 등 확인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달 30일 운주면 일원의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현장 찾아가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기 전 장성천 등 주요 복구 현장의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진행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기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기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방세 징수 2년 연속 ‘우수’

도 징수평가 최우수 선정 채납관리단 최초 운영 결실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C그룹 시·군 최우수로 선정되며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로 순창군은 특별조 정교부금 1,2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최근까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를 통해 총 4,9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채납액 징수율, 이월채납액 관리, 현장 징수활동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순창군은 채납액 징수율 향상과 체계적인 채납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순창군은 도내 최초로 지방세인 채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독려를 추진했으며,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채납처분을 병행해 채납액 징수 실적을 높였다.

또한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채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병행해 조세 정의와 복지행정을 함께 실현 이월채납액 관리, 현장 징수활동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우체국물 특별기획전 지역 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남원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우체국 소포물(mallepost.go.kr)’을 통해 ‘2026 하반기 남원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획전에는 남원시 약 80개 농식품 업체가 참여해 김부각, 추어탕 등 남원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추석 명절 단기 행사 방식을 상·하반기 정기 프로모션 체계로 개편해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기간 동안 전 고객에게 상시 5%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추석 명절 기간에는 최대 15%에 달하는 할인쿠폰을 특별 지원한다. 여기에 참여 업체별 자체 할인까지 동시 진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와 식품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6월부터 신청 접수 청년·다자녀가구 혜택 강화

남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50대와 전기화물차 98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36대 등 총 9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환지원금 제도도 운영된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한 뒤 전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구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전북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완주군 봉동읍, 선덕보육원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맞손’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윤당호)와 선덕보육원(원장 성제환)이 지난달 30일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교육·취업 지원 △기관 사업 홍보 및 인적·물적 지원 교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차오름 봉사단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선덕보육원 생활아동과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된 차오름 봉사단은 관내 홀몸노인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나눔, 말벗 및 산책동행, 인지 프로그램 진행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옥천장학회,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1인 최대 200만원 차등 지원

순창군은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옥천장학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총 472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372명,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 25명,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5명,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 58명, 검정고시 합격자 12명 등 총 472명이며, 총 8억 5,6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대상별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출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원 금액은 학년과 재학 시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은 200만 원,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은 150만 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2026년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순창군 홈페이지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공동·자기방제 선택 참여 가능

남원시는 벼 주요 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2026년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내 벼 재배지역 중 항공방제가 가능한 약 21,100ha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되며, 벼멸구, 흑점나방, 도열병, 개씨무늬병 등 주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농협 방제단을 활용한 공동방제와 농업인 개별 자가방

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의 의견에 맞는 맞춤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4개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지역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방제 효율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제 추진 시 친환경 인증 농가와 양봉농가, 시설재배 농가 등에서는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서, 보이스피싱 예방 신협 직원에 감사장

완주경찰서(서장 손광혁)는 의심 거래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조치로 1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한 호남제일신협 직원 유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남제일신협 창구 담당자인 유 씨는 최근 창구를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투자를 목적으로 거액을 송금하려 하니 이제 한도를 넘었다”고 요청하자 사기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다각도로 만류에 나섰다.

그러나 거듭된 고객의 강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도를 증액했고, 이후 실제 거액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직감하고, 금융기관 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조직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유 씨의 이 같은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고령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인 1억 원은 전액 회수될 수 있었다.

손광혁 완주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실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험표지 등의 이동 및 훼손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4개반 21명을 편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진안군이 민선9기 진안군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내외에 선포했다.

1일 민선9기 제52대 전춘성 군수 취임식과 함께 열린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9기 출범을 축하했다.

군은 오전 8시 30분 총합담 참배를 시작으로 화합의 나무 심기, 기자간담회에 이어 본 행사인 '민선 9기 진안형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춘성 군수는 취임사에서 군정 비전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 △든든한 미래를 여는 선진농업 △상생으로 번영하는 민생경제 △활력이 넘치는 건강치유도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 진안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비전 선포식은 민선 9기 진안군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운 뜻깊은 자리"라며 "민선 9기를 진안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철민 기자



임실 성수면, 온기 불어넣은 행복나눔 서비스 시작

임실군은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역량강화사업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밀반찬 등을 전달하고, 돌보는 행복나눔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성수면 행복나눔 서비스는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성수면 남성요리교실을 연계하여, 주민교육을 통해 전문강사와 함께 실습한 밀반찬을 관내 21개 배후마을(50가구)에 전달했다.

성수면 남성 요리교실은 지역 내 남성 어르신들이 함께 고령자 완화 및 균형적인 식생활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민선 9기 출범

기본사회 무주 대도약 실현

3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1일 제47대 무주군수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민선 9기 무주 군정의 내실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월례 조회로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읍 예채문화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공직자 8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군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제47대 무주군수로 단상에 오른 황인홍 군수는 "민선 7·8기를 함께 뛰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기반을 일군 8백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라며 "민선 9기 기본사회 무주를 완성하고 무주의 대도약을 실현하는 데도 마음을 모아보자"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협업·책임은 군정 기조로서 성과로 답하는 민선 9기를 만들어보자"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 무주, △현대도전의 조기 안착과 점



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황 군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무주형 기본소득의 완성과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주거 응급 지원, 무료 버스 운영 등을 꼽았다.

또 현대도전 투자협약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무주, 지역경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무주를 만드는 전환점인 만큼 추진 속도가 중요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산업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기반 시설 구축

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되는 무주농업"은 이상기후와 고령화, 유통의 변화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성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고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체계를 공고히 해 '1억 원 이상 소득 농가 1천 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품 산림 도시로 무주를 알리고 무주반딧불축제를 글로벌 환경축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미식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을 실어 K-관광 수도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며 하루 더 머무는 '사계절 수익형 관광도시'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본격화, 영호남 철도연결과 국도 개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으며 '사통팔달 무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5대 군정방침 새 도약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목표

장수군이 1일 10시 한누리전당 산대관에서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재선에 성공한 최훈식 제48대 장수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민선9기 장수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 당일 최훈식 군수는 오전 9시 논개사당에 들러 분향하고 남산 총흔비에서 참배하며 군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후 취임식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취임식은 최훈식 군수의 가족, 정상득 장수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군민과 함께 축하하는 군민 참여형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취임식에서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라는 민선9기 군정목표와 장수가 나아가야 될 5대 군정방침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군민과 함께가는 기본사회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사계절 찾고싶은 문화·관광 △군민이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제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장수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장수의 발전을 위해 더 열

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장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서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앞으로 4년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고 '군민을 섬기는 군수',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장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득수 군수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군정 핵심 정책 제시 군민 주권·현장중심 소통행정

1일 제 48대 임실군수로 '한득수호(號)'가 본격 출범하면서 군민주권의 새로운 임실시대 도약을 위한 첫 출항에 나섰다.

이날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득수 제48대 임실군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필봉농악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취임사, 민선9기 비전 포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한 군수는 "임실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있다"며, "군민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머물고, 행복



이 자라는 임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실축협 조합장 재임 당시 차별 철폐와 무차별 조합원 정리,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등 조직 혁신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임실군 행정 전반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정책도 제시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중심의 1차 의료기반을 확충해 군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신소득을 보급하고, 임기 내 농업 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의회·농협·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체육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운영 철학도 제시했다.

군민주권, 군민우선의 행정분야에서는 군민 정책참여 창구인 '소통광장'을 운영하고,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이 주민되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

6월 말 기준 지급률 99.2%·사용률 81.85%

무주군은 1일 무주 반딧불시장 일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조기 사용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알렸다.

임재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고

유가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 중인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상권 회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라며 "군민들이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적극 사용해 소비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의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을 지급한 바 있다. 6월 말 기준 19,714명 중 19,548명에게 지급을 완료(지급률 99.2%)했으며 신용·체크카드, 무주사랑상품권 사용률은 18억 8천여만 원(81.85%)에 이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무주군은 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지방세 징수실적 '으뜸상'

특별조정교부금 800만원 확보 공정한세정 운영 성과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재하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세와 시·군세 징수를 총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장수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은 남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장 오광석 의원 선출

부의장 오순덕 의원 확정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지난 1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오광석 의원(사진)을 선출하고 오순덕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장



을 역사를 만들 어낼 제10대 무주군의회

에 박희용 의원을 선출했고 산업건설 위원장에 이해양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도 함께 합쳐며 원 구성을 마쳤다.

오광석 의장은 당선 후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민생을 살피고 무주군의 번영을 이루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고 군민 피부에 닿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의원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도록 독려하고 앞장서겠다. 무주군의 새로

이날 임시회를 통해 원 구성을 마친 무주군의회는 당분간 교육에 집중하며 의원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장수군의회는 1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장수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정상득, 부의장에는 문재표, 행정복지위원장에는 한선미,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는 재직의원 일곱명이 모두 참석하여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했다.

정상득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장수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독립된 입법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간인 2028년 6월 30일까지이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장수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의 장 정상득 (조선,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부의장 문재표 (조선,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한선미 (조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건설위원장 임정권 (조선,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업인 AI 마케팅 교육 추진

농산물 홍보도 AI 시대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문서,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를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3회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명 내외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640-5023)으로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주민 문화탐방 마련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관내 외국인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문화자원 탐방을 위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참가자들은 구이면 안덕마을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안덕마을에서 전통 발효음료인 모주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 곳곳을 산책하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주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고,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겼다.

특히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헌옷 활용 발매트 제작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한 신규 공모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총 6회) 행복한 손놀이 재봉틀 자원봉사단(회장 김영란) 회원들이 참여하여 행복한 가게에서 순환 되지 않는 청바지를 활용하여 웃감을 제단하고 디자인하여 발매트(80개)를 업사이클링했다. 또한 버려지는 현수막을 회수하여 시장 가방(100개)을 만들어 장수관내 취약계층에게 함께 나누어 예정이다.

이희숙센터장은 "장수군민들이 자원 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인식 개선 변화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국경모 소방경 '2026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화재구조구급 사회적 귀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국경모 소방경(사진)이 23년 2개월간의 모범적 소방공직을 수행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경모 소방경은 하트세이버 등의 다양한 화재 예방 소방행정의 공적수행 업무성과를 보이며 '2026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됐다.

모범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 귀감 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증진·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 36156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모범공무원 선정자에게



는 국무총리 표창이 이어진다.

선정 과정은 각급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가운데 소방조직은 소방경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국경모 소방경은 2002년 7월 25

일 임용되어 현재까지 23여년간 화재예방 제난대응분야 성과를 보이며 여러 동료들의 대표적인 사회적 귀감을 사고 있다.

그의 공직 생활 중심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핵심으로 한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 현장 근무 수행에 책임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재직 기간 중 총 450여건의 화재 진압에 앞장섰으며 이 가운데 시민 생명보호 위한 심정지환자 소생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국 소방경은 공무수행 업적 관련해 지역 안전관리 강화 위한 관내 4900개동 소방시설 불량

사항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5개 단지 25개 동 52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겨울철·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며 화재예방 홍보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 예방 중심 소방행정을 펼친 모범공무원이기도 하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국경모 소방경 향해 "국경모 소방경의 책임감과 헌신이 뒤따른 값진 결실"이라며 "진심 다한 축하를 드리며, 시민 안전 향안 역량 발휘에 더욱 전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영태 기자



고창시니어클럽, 시니어농장 사업단 감자 수확

고창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이 지난달 30일 시니어농장 사업단 참여 어르신 18명과 함께 감자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시니어농장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공동체사업으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소득 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수확한 감자는 참여 어르신들이 파종부터 재배, 물 관리 등 재배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정성껏 키웠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근 고창시니어클럽 관장은 "시니어농장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 전북 기능경기대회 메달 획득

금상 1·은상 2·동상 1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소속 훈련생 4명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획득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자 열렸다.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3곳에서 21개 직종, 총 167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복지관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수리, 커피 전문가(바리스타) 4개 직종에 총 11명이 도전했다.

이 가운데 바리스타 송지윤 금상 △바리스타 황수진 동상 △워드프로세서(뇌병변중증 장애인 대상) △워드프로세서(모든 장애유형 대상) 서진선 은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복지관이 기능경기대회 준비반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한 결과다. 참가자들은 장애 유형에 맞춘 개별 실습을 반복하며 전문 기술을 다듬어 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 소속 훈련생 4명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획득했다 <사진=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

부안 아리울한우명품관, 소외계층에 점심 나눔



부안의 대표 맛집인 아리울한우명품관(대표 신영순)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리울한우명품관은 지난 30일 관내 다문화 가정 여성 및 지적 장애인 30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정

성껏 준비한 사람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유독 마음이 외롭고 지치지 쉬운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사에 참여한 분들은 아리울한우명품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리울한우명품관의 이러한 선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신영순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월 행련이 어려운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왔다.

신영순 대표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큰 힘과 위로를 얻는다"라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진봉면지사협, 취약계층 밀반찬 나눔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지난달 30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을 담아 밀반찬(짜리고추멸치조림), 완성된 반찬은 지역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와 조리에 참여하며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최준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 용진읍 주민자치위, 소양천에 다슬기 치패 방류

완주군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호연)가 소양천 일원에서 만경갯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다슬기 치패 100kg을 방류하며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만경갯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 환경복지분과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다슬기 치패를 방류했다.

다슬기는 하천 바닥에 쌓인 유기물과 이끼 등을 섭취해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수생 생물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방류한 다슬기 치패는 향후 만경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Infographic showing prohibited items in cars: Hand sanitizer, electronics, shoes, sunglasses, lighters, spray, and plastic bottles. Each item is shown with a 'no' symbol over a car icon.

〈一事一言〉



휴게소 핫바가 5천 원인 이유... 도로공사는 '악덕 건물주'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서민 밥값으로 전관역대연봉 잔치 도로공사의 후안무치

고속도로 휴게소는 여행의 선택이 머무는 곳이자,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쉼터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휴게소는 '바가지 물가'의 대명사가 됐다. 5,000원짜리 핫바, 6,000원이 넘는 김밥, 시중보다 20~30% 비싼 돈가스까지, 국민은 공공 인프라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휴게소의 고물가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로 밝혀진 휴게소 물가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가 사 먹는 음식값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임대료와 운영사의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도로공사다. 도로공사는 전국 215개 휴게소의 운영권을 쥐고 매출 대비 16~23%에 달하는 고율의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일반 상권의 임대료가 매출의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악덕 건물주'보다 더한 수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높여 받는 누진제 정책이다. 점주가 바리다매로 질 좋은 음식을 싸게 팔려 해도, 매출이 늘면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몫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결국 가격을 올리거나 저급 식재료를 쓰는 악순환을 강요하는 구조다. 44주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 국민의 먹거리 비용을 '가성비 좋은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도로공사의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은 운영사들의 행태는 더 점입가경이다. 10년 이상 장기 운영권을 독점해 온 이들은 임점 업체 점주들에게 또다시 25~30%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여기에 관리비와 '통행세' 성격의 식자재 납품 비리까지 더해지면, 점주 손에 남는 것은 매출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5,000원짜리 핫바 하나를 팔아 점주가 쥐는 순이익이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하다는 고백은 휴게소 물가가 왜 이토록 기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퇴직금 털어 매장을 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낮은 서비스 질과 비싼 가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 기이한 수수료 구조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전관예우'와 '로비'라는 적폐의 사슬이다. 장기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사들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을 역대 연봉 임원으로 채용한다. 사실상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 외에는 하는 일 없는 전관들의 고임금을,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 먹는 서민들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운영사 교체 시 오가는 수억 원대의 비공식 '관리금' 관행까지 더해지면, 휴게소는 공공의 쉼터가 아니라 '비리의 백화점'이자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사유지로 전락한다.

특히, 도로공사가 내놓은 '실속 상품' 제도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이다. 임대료와 수수료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으면서, 점주들에게만 싼 가격에 팔라

고 강요하니 현장에서는 '품질' 처리라는 핏수가 난무한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를 만들어놓고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름없다. 도로공사는 "과거보다 물가가 싸졌다"는 망언에 가까운 해명 대신, 자신들이 떼어가는 임대료부터 대폭 인하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도교통부는 이제라도 휴게소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단단계 하청 구조를 단순화하고, 도로공사와 운영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장기 독점 운영권을 회수하고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휴게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공공의 자산이다. 특정 공기업과 운영사 카르텔이 국민의 밥값을 통행세처럼 징수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휴게소에서 비싼 가격에 화나고, 낮은 품질에 실망하며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고 싶지 않다. 도로공사와 운영사들이 누려온 '부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핫바는 다시 국민의 즐거움 간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휴게소 비리의 '호구'가 아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내놓은 '실속 상품' 제도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이다. 임대료와 수수료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으면서, 점주들에게만 싼 가격에 팔라

사설

'호남 반도체'라더니 전북은 없다...이름 도용도 이쯤이면 그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은 연일 '호남 반도체 시대'를 외치고 있다.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호남'이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화려한 구호 속에서 정작 전북은 어디에 있는가. 냉정한 현실은 참담하다. 투자도 없고, 공장도 없으며, 국가 프로젝트도 없다. 있는 것은 '호남'이라는 간판뿐이다.

광주와 전남에 집중되는 사업을 '호남 투자'라고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전북을 둘러리도 세우는 일이다. 정치적 수사는 화려하지만 실제 혜택은 전북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는 '호남 투자'가 아니라 '광주·전남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전북을 제외한 사업에 '호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도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기만에 가깝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전북 정치권과 행정의 존재감이다. 국가 전략산업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과 설득, 정치력으로 따내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동안 전북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소외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전북은 결코 반도체 산업의 변방이 아니다. 새만금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물류 경쟁력 등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경쟁력이 아니라 이를 국가 전략으로 연결해 낼 정치력과 행정력의 부재다. 스스로 몫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호남'이라는 이름만 빌려 쓰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특정 지역에만 전략산업을 몰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이다. 전북을 제외한 채 '호남 발전'을 말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지역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호남 반도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싶다면 전북에도 반도체 산업의 분명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광주·전남 반도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이 정직하다.

이제 전북은 더 이상 이름만 빌려주는 '호남' 이어서는 안 된다. 전북의 몫을 요구하지 못하는 정치권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전북을 뺀 채 '호남'을 외치는 정부 역시 균형발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북 없는 호남 반도체는 허울뿐인 구호일 뿐이다. 그 기만은 이제 끝내야 한다.

| 독자 투고 |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배려가 생명 지킨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와 시야·인지 능력 감소로 인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통시장·병원·공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감속운전과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행자 또한 무단 횡단을 삼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은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고령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팀
순경 박세영

오늘의시

바람 잘 날 없으라 / 박노해

바람 잘 날 없으라	너무 힘들다	오늘 이 아픔 속에
내 생의 길에	너무 아프다	의로움 속에
은 동치가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푸르게 내가
뿌리마다 사무치고	이렇게 싸워야 하나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 언제나 그치나	바람 잘 날 없으라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울지 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엔 선린상고에서 수업을 들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이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 6개월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일반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진안지국 010-2433-1721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김제시립도서관, 책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잇다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김제시립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연결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주목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 선정에 이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부문 우수 도서관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전북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 “책 읽는 도시 김제”를 만드는 힘

김제시립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 중심의 도서관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출생에서부터 취학 전 영유아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것은 물론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놀이를 운영하는 ‘북스타트’는 영유아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운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업은 지역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는 김제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독서 운동으로 발전하며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책 읽는 아이가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독서문화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실감동화나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깨우다

김제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실감동화나라’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놀이,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독서 체험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조성된 실감동화나라는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그림책과 접목한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연간 1,3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이용하며 김제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5면형 실감 체험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대형 스크린 속 동화 세계에 직접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 뛰고 움직이며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동화구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4차원 공룡세계’ 등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신규 5면형 콘텐츠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실감형 단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보다 풍성한 독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AI와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여는 시민 창작 공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미디어 창작공간 ‘모두ON’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교육, 브런치 작가 양성과정, 유튜브 제작, 디지털 드로잉 등 시민들의 디지털·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어르신에게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

고령화 시대를 맞아 김제시립도서관은 어르신을 위한 독서복지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실버 인지 책놀이 지도사를 양성해 운영하는 ‘행복한 어르신 책과의 만남’ 사업은 경로당과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책을 매개로 어린 시절 추억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독후 활동과 놀이 프로그램은 인지능력 향상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 도시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 행사인 ‘북적북적 책놀이축제’는 독서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공연,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매년 수천 명의 시민이 찾는 김제 대표 독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독서의 달 연계를 통

한 9월 12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김제에서 찾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김영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김제 출신 아동작가 3인 3색전과 지역 작가 및 작가와 연계된 지역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소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느린우체통’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과 우체국이 협력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이용자가 작성한 편지를 1년 뒤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 미래의 꿈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 책으로 하나 되는 인문학 도시를 꿈꾸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인문학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소설 아리랑 함께 읽기’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김제시립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사업으로, 시민들이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삶과 우리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김제와 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아카데미’, 청소년 독서토론 강좌 ‘1318 청소년 독서탐험대’, 청년 독서모임 ‘청년독서 온더 페이지’ 등 세대별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독서 동아리 육성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서관

모든 시민이 독서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포용적 도서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은 2012년 지속 추진 중이며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병원 독서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양육 가정 등을 대상으로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해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촘촘한 독서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포용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각종 수상으로 운영성과 인정 받아

김제시립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문화 사업과 생애주기별 독서복지 서비스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한국도서관상’,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25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서관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서와 문화, 디지털과 인문학을 연결하며 누구나 찾고 싶은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 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김제시립도서관은 2024년 금구도서관, 2025년 김제시립도서관, 2026년 만경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중심의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이 책과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도서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배우고, 소통하고,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제14회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p>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p> <p>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p>	<p>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p> <p>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p> <p>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진구 태진로77,5층</p>
--	--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